

분라쿠

인형극이 과거의 일본을 살아나게 하다.

인형극 무대

'분라쿠' (인형극) 무대는 3인 인형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성되었다. 인형극 공연자들은 무대 앞의 난간 뒤쪽의 구멍에서 인형을 조정한다. (사진 제공 : 국립극장/분라쿠자)



'분라쿠'는 일본의 전문적인 인형극이다. 17세기와 18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4대 고전극 중 하나이다. 나머지는 '가부키', '노' 및 '교겐'이다. '분라쿠'라는 말은 분라쿠자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상업 '분라쿠' 극장의 이름이기도 하다. '분라쿠'는 또한 '닝교 조루리'라고도 불리우며, 이는 분라쿠의 기원과 본질을 강조한 말이다. '닝교'는 "인형" 혹은 "애완인형"을 의미하며 "조루리"는 세 줄의 "샤미센" 반주에 맞춘 이야기식 창작의 한 형식이다.

'가부키'와 함께 '분라쿠'는 에도 시대(1603-1867)의 번영하는 상인 문화의 일부로 발전하였다. 인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극은 아니다. 가장 유명한 극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극작가인 치카마츠 몬자에몬(1653-1725)에 의해 쓰였으며 공연자의 놀라운 기술은 인형 캐릭터와 이야기가 무대에서 살아나게 한다.

분라쿠의 역사

헤이안 시대(794-1185)에 이미 '구구츠마와시'라고 하는 순회 인형극단들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집집 앞에서 공연하고 돈을 받았다. 에도 시대까지 지속되었던 이러한 형태의 거리 공연에서 인형극 공연자는 목에 걸린 상자로 된 무대에서 두 손으로 인형을 조종하였다. 많은 '구구츠마와시'들이 오늘날 고베 근처의 니시노미야와 아와지섬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진다. 16세기에 이러한 무리에서 나온 인형극단원들은 황실 가족과 군사 지도자를 위해 공연하도록 교토로 불려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인형극은 '조루리' 예술과 결합하게 되었다.

'조루리'의 선구자는 '비와 호시'라고 불리는 눈먼 떠돌이 여행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류트의 일종인 '비와'를 연주하면서 다이라 - 미나모토 전쟁을 묘사한 전쟁 서사시인 '헤이케 이야기'를 노래했다. 16세기에 '샤미센'이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인 ‘비와’를 대체하였고 ‘조루리’ 형식이 발전하였다. ‘조루리’라는 이름은 이러한 형식으로 노래한, 시초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였던 영웅 이나모토노 오시츠네와 아름다운 여인 조루리의 사랑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노래 및 ‘사미센’ 연주와 결합한 인형극 예술은 17세기 초기 에도에서 (현재의 도쿄) ‘쇼군’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의 후원을 받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많은 극들은 대담하고 기이한 영웅적 행위로 잘 알려진 전설적인 영웅 김피라의 모험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다유’ (영창하는 사람)인 다케모토 기다유 (1651-1714)와 극작가 지카마츠 몬자에몬, 두 사람의 재능에 힘입어 상업도시 오사카에서는 ‘닝고 조루리’의 황금시대가 열렸다.

1684년 오사카에서 기다유가 다케모토자 인형극 극장을 연 이래, ‘기다유 - 부시’라고 불리는 그의 힘있는 창 형식이 ‘조루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685년 지카마츠는 기다유를 위해 역사 드라마 (‘지다이 - 모노’)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에 그는 10년 이상 동안 ‘가부키’를 위한 작품을 썼지만 1703 다케모토자로 돌아와 1705년부터 그의 생이 끝날 때까지는 인형극 집필에만 전념했다. 왜 지카마츠가 ‘가부키’를 쓰다가 다시 ‘분라쿠’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가부키’에서 극작가와 배우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에 유명한 ‘가부키’ 배우들은 극을 원재료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재능으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1703년 지카마츠는 새로운 형태의 인형극인 가정 드라마 (‘세와 - 모노’)를 고안하여 다케모토자에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상점 점원과 고급 매춘부가 동반 자살을 한 후 한 달 만에 지카마츠는 그 사건으로 ‘소네자키의 사랑과 자살’이라는 극을 만들었다. 이 작품에는 나타나있는 사회적 의무 (‘기리’)와 인간의 감정 (‘닌쥬’) 사이의 갈등은 이 시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분라쿠’의 중심 주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지카마츠의 일련의 사랑과 자살극 같은 가정 드라마는 인형극 극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역사 드라마도 계속 사

랑 받았으며 관객들이 가정극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깊이를 기대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 이러한 작품의 한 예가 바로 가장 유명한 ‘분라쿠’극으로 여겨지는 ‘가나데혼 즌신구라’이다. 1701-1703의 47명의 ‘로닌’ (‘주군이 없는 사무라이’) 사건의 실화를 근거로 한 이 작품은 47년 후인 1748년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도쿠가와 ‘쇼구리’의 외교부 의전장 (기라요시나카)의 모욕으로 봉건영주 아사노 나라노리는 에도성에서 칼을 뽑아 자살하도록 강요 당하고 그의 조직은 해체된다. 47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은밀하게 계획하여 거의 2년이 지난 뒤에 기라를 죽여 복수한다. 그 사건이 있는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도쿠가와 ‘쇼군’에 불쾌감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작가들은 여전히 시간과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꾸었다. 이 유명한 극은 곧 ‘가부키’극으로 각색 되었고 두 장르의 중요한 레퍼토리가 되었다.

18세기 전체에 걸쳐 ‘분라쿠’는 ‘가부키’와 경쟁 및 협력 관계를 통해 발전하였다. 각자의 역할에서 ‘가부키’의 배우들은 ‘분라쿠’인형의 독특한 동작과 ‘다유’의 노래 형식을 모방했고 인형극 공연자들은 유명한 ‘가부키’ 배우들의 화려한 연기를 차용하였다. 극의 수준 면에서 많은 ‘분라쿠’ 작품, 특히 지카마츠의 작품은 ‘가부키’ 작품을 각색하였으며 사치스러운 ‘가부키’형식의 작품들이 ‘분라쿠’형식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18세기부터 ‘가부키’의 인기에 밀려 점차 쇠퇴하게 된 ‘분라쿠’는 상업적인 실패로 이어졌고 극장들은 하나씩 문을 닫게 되어 분라쿠자만 남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분라쿠’는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고 최근에는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분라쿠 협회의 후원 하에 매일 도쿄의 국립극장과 오사카의 국립 분라쿠극장에서 정기 공연이 열린다. ‘분라쿠’ 공연 투어는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왔다.

인형과 공연

실물 크기의 반에서 3분의 2정도 되는 ‘분라쿠’인형은 나무 머리, 어깨판, 몸통, 팔, 다

3인 인형

세 명이 하나의 인형을 조정한다. 주 인형극 공연자 (왼쪽)는 왼손으로 인형의 머리를 바치고 오른손으로 인형의 오른손을 조정한다. 한 명의 조수는 왼손을 또다른 한 명은 다리를 조정한다. (사진제공 : 국립극장/분라쿠자)

리 및 의상과 같은 몇 가지의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다. 머리는 눈과 입, 눈썹을 움직일 수 있는 끈이 달린 손잡이가 있다. 이 손잡이를 어깨 판 중앙에 있는 구멍 안에 넣는다. 팔과 다리는 어깨에 끈으로 달려있고 의상은 어깨와 몸통 위에 걸쳐고 엉덩이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대나무 테가 달려있다. 여자 인형은 종종 얼굴이 움직이지 않으며 기다란 기모노가 몸통의 아랫부분을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형에 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사용하는 인형 머리는 서로 다른 수십 가지가 있다. 극에 사용되는 인형의 머리는 약 70개 정도이다. 젊은 미혼 여자나 힘이 센 젊은 남자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는 각 머리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로 사용되며 종종 처음으로 등장할 때 배역의 이름을 언급한다.

‘오모즈카이’ (주 조종자)는 그의 왼손을 의상 뒤쪽의 입구에 집어넣고 머리 손잡이를 잡는다. 오른손으로는 인형의 오른팔을 움직인다. 커다란 무사 인형은 무게가 수 킬로그램에서 10킬로그램 이상까지 나가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되기도 한다. 왼팔은 ‘히다리즈카이’ (첫 번째 조수)가 조종하며 다리는 ‘아시즈카이’ (두 번째 조수)가 조종하고 발소리로 효과음을 내거나 ‘샤미센’ 리듬을 끊기도 한다. 여자 인형의 경우 ‘아시즈카이’는 발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 ‘기모노’의 아랫 부분을 조정한다.

지카마츠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인형을 조정했으며 1734년이 되어서야 삼인 인형이 소개되었다. 원래 이 단독 조종자는 무대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소네자키의 사랑과 자살’에서 인형극의 대가 다트마츠 하치로베이는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모습을 보이며 공연했다.

오늘날에는 세 명의 인형극 공연자 모두가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종자는 대개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두건을 쓴다. ‘분라쿠’계의 유명인사인 주 조종자는 종종 검은 두건 없이 공연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려한 흰색 비단 걸옷을 입고 공연하기도 한다.

인형극 공연자와 같이 ‘다유’와 ‘샤미센’ 연주자도 원래 관객들이 볼 수 없었지만 1705년 새로운 극에서 다케모토 기다유는 관객들에게



모습을 보이며 창을 하였고 1715년 ‘다유’와 ‘샤미센’ 연주자 모두 특별히 높게 만든 무대에서 공연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다유’는 전통적으로 ‘분라쿠’극단에서 가장 높은 지휘에 있다. 해설자로서 그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낮은 목소리의 남자에서부터 높은 가성의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모든 역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샤미센’ 연주자는 단순히 ‘다유’의 반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형극 공연자, ‘다유’ 및 ‘샤미센’ 연주자는 공연 중에 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극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샤미센’ 연주자에 달려있다. ‘가부키’에서 각색한 몇몇 대규모 ‘분라쿠’극과 화려한 공연들에서는 여러 팀의 ‘다유 - 샤미센’ 팀과 ‘샤미센’ 합주가 연주된다.

분라쿠 극 : 소네자키 신주 (소네자키의 사랑과 자살)

지카마츠 문자에몬의 대표작은 인간의 감정과 동시대 사회의 엄격한 제약 및 의무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새 가정 드라마 (‘세와 - 모노’) 장르의 시초였다. 이 극의 대성공으로 상인과 고급 매춘부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드라마가 더 많이 만들어졌고 이와 유사한 사랑과 자살을 다룬 아류작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다.

1장 : 손님들에게 간장을 배달하는 간장 판매점 점원인 도쿠베이는 오사카의 이쿠타마 신사에서 우연히 고급 매춘부인 오하츠를

두루마리 그림

‘소네자키의 사랑과 죽음’ 지카마츠 몬자 에몬의 유명한 극 중 한 장면(사진제공 : 국립극장/분라쿠자)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울면서 그가 편지도 보내지 않고 방문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한다. 도쿠베이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후 그녀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간장 판매점의 주인인 도쿠베이의 삼촌은 도쿠베이에게 그의 아내의 질녀와 결혼하라고 하였지만 도쿠베이는 오하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도쿠베이의 계모는 몰래 혼인에 동의한 뒤 엄청난 신부 지참금을 받고 시골로 도망했다. 도쿠베이가 다시 결혼을 거절하였을 때 화가 난 그의 삼촌은 신부 지참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마침내 계모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게 되자 도쿠베이는 돈을 늦게 갚는 습관이 있는 친한 친구 구헤이지에게 그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그때 술 취한 구헤이지가 몇 명의 친구들과 신사에 오게 된다. 도쿠베이가 그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구헤이지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도쿠베이를 구타한다.

구헤이지가 떠나자 도쿠베이는 구경꾼에게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살로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암시한다.

2장 : 같은 날 저녁 오하츠는 그녀가 일하는 매춘소인 텀마 여관으로 돌아온다. 그날 일어난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된 그녀는 도쿠베이를 흘끗 보고 몰래 빠져 나온다. 그들은 함께 울고 도쿠베이는 그녀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살밖에 없다고 말한다.

오하츠는 도쿠베이를 그녀가 앉은 현관 아래에 숨기고 그때 구헤이지와 그의 친구들이 도착한다. 구헤이지는 계속 도쿠베이의 유죄를 주장하지만 오하츠는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그때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그녀는 도쿠베이가 자살을 결심했는지 물어본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그는 그녀의 발을 그의 목에 걸치면서 대답한다. (여자 인형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특별히 만든 다리를 사용한다.)

구헤이지는 도쿠베이가 만약 자살하면 그가 오하츠를 돌봐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도둑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비난한다. 오하츠는 그녀가 도쿠베이와 함께 죽길 원하는 것처럼 도쿠베이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사랑에 감동한 도쿠베이는 그의 이마에 그녀의 발을 달게 하여 응답한다.

구헤이지가 떠나자 여관은 조용해지고 오하츠는 도망칠 계획을 세운다.

3장 : 소네자키 숲으로 가면서 도쿠베이와 오하츠는 그들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설자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감성적인 대사를 말한다. 길가의 찻집에서 듣고 있던 주객은 옛사랑과 자살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도쿠베이는 그 노래가 자신과 오하츠에 대한 노래인지 궁금해 한다.

소네자키 숲에 도착한 후 오하츠는 그녀의 장식띠를 자르고 그들은 자신들을 가려 아름답게 자살로 마무리하려 한다. 도쿠베이는 그의 삼촌에게, 오하츠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들이 야기한 문제들에 대한 용서를 빈다. 아미타여래에 대한 기도를 마친 후 그는 그녀를 찢고 그도 자살한다.